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김하림	소속(학부/과)	경영학과
파견 학기	2019년 1학기		파견 국가	일본
파견 대학	수도대학도쿄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군 생활을 하며 평소 흥미가 있던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 정도 공부하니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쉽더군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와 교환학생을 알아보던 중 금오공대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에 항상 흥미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을 수도대에서 작성하기 쉽게 나눠 보내주기 때문에 형식에 맞춰 작성만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기재 되어있는 거주 지역에 맞추어 서울 대사관 또는 부산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하루 뒤에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신다면 별 문제 없이 비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유롭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교환학생에 합격하셨다면 입국하는 항공편의 정보를 금오공대와 수도대에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전쯤에는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도대에 도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전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출국 전 미리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 잘 참석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기숙사 RA나 국제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기숙사 신청은 입국 한달 정도 전 수도대에서 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로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한 번에 결제하여 그 영수증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기억됩니다. 이 또한 큰 메일에 지시 사항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에 큰 돈을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지하시고 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수도대학은 도쿄 미나미오사와역과 붙어있어 도쿄의 중심이라고 할 순 없지만 게이오선을 타면 바로 갈 수 있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기 또한 금오공대의 몇배는 되는 매우 큰 학교입니다. 도착해보면 이곳이 도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탁 트인곳에 있으며 주변으로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 답답한 도심의 느낌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은 역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울렛이 전부라 사실 대학로만 따져봤을 때 금오공대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강좌가 개설되어있기는 하나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jlpt n2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어강좌는 복습 수준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n1 이상 강좌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종류도 많지 않아 결국 n2~n3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수업 외에도 전공수업이나 교양수업 역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공강 없이 매일 수업을 넣어서 13과목을 들었습니다. 전공과 교양은 아무래도 현지 일본인 대학생과 같이 듣다보니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수업 보다는 상당히 수준높은 일본어로 수업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듣기에 어느 정도 능숙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수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수업까지 재미있게 수강하였으나 강의를 듣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시험을 칠 때 아무래도 일본인과 일본어로 전공 과목을 경쟁한다는 점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공과 교양수업을 들으면 유학생이 아닌 평범한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고 조별 과제 등을 통해 실제 일본 대학생활에 가장 근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글로벌 하우스 조후는 한 유닛에 세 명이서 같이 생활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수도대의 장점은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라운지에서 다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닛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여 다들 식사를 하기 위해 라운지로 모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겨 친구 만들기에 아주 용의합니다. 1인 1실로 운영되는 다른 대학보다 어찌 보면 시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정말 매일 부대끼며 가족같은 친밀함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인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먼저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숙사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RA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거나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는 RA들에게 문의한다면 매우 친절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달에 4만엔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처음 돈을 지불할 때 보증금으로서 4만엔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학기가 끝나 돌아가기 전에 국제과에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유닛의 청소비, 점검비 등을 제하고 2만4천엔 정도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보증금처럼 전부 다 돌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생활비는 우선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유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매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하루 왕복하게 된다면 5000원 이상의 교통비가 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강을 만들어 매일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비와 생활비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생활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자제하고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행 몇 번 다녀오면 한 달에 70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지 않고 식비도 절약한다면 한 달에 50정도면 생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학생들 중에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 학

기라는 짧은 유학이라면 아르바이트 보다는 유학생생활을 즐기고 공부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수도대 국제교류원에서는 달에 한 번정도 유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모집해 문화체험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동아리 hands에서 현지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같이 진행하는 이벤트를 많이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과에 방문하면 진행하는 여러 행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기 초에 동아리 3개 정도에 가입하였으나 기숙사에서 유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제대로 활동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유학이라면 동아리보다는 유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아리 중에서 가볍게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동아리는 보드게임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공강시간에 가면 여러 회원들과 가볍게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많은 활동을 요구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그 외에는 교양수업 중 사귀 친구의 권유로 칵테일 제작 동아리 '파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인원도 적고 함께 칵테일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부원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유학을 한다면 좀 더 여러 이벤트에 참여하여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학기만으로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영상제작 동아리 같은 부류는 함께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칵테일 제작이나 보드게임 같은 부담감이 적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의 일상 생활은 외국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걱정과 부담보다는 생각보다 적은 문화적 차이에 오히려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하우스에 살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많은 문화적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공용 공간에서의 설거지에 대한 생각이 동,서양으로 나뉘어 다르거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서양의 파티문화를 겪어 보거나 하는 일 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겪을수록 재미있고 깨닫는 점이 많을 때도 있지만 때론 서로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마찰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환학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는 정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라운지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에서 동아리를 생활을 하거나 뭐든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일본까지 유학 와서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왕 외국에서 보내는 짧은 몇 달간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와서 뭐든 해보세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욱 값진 경험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사실 한 학기 동안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본에서의 몇 개월은 인생을 통틀어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로 가득한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 졸업 준비, 취업 걱정,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환학생도 그저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알팍한 생각과 다녀오면 졸업에 지장이 생길까 하는 소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러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이에 상관없이 유학, 워홀 등으로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본어를 공부할 때, 배운 것을 사용하여 소통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본 것은 심적으로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준비하며 본인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볼 것입니다. 더불어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